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 1~9 |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베데스다를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베데스다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병자는 자신을 베데스다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지만 38년 동안 도움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의 병을 즉시 낫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참된 도움은 사람의 손길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기한 것은 베데스다는 원어로 ‘베이트 헤스다’로 그 의미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베데스다가 되며, 그 은혜가 각자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1. 예수님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였습니다.

요 5: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든 질문은 그냥 하시든 질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낫

고 싶은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고쳐 주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도움 주는 것에 인색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2. 아무 조건 없이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요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표준새번역 성경은 본문을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시니”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지 않았는데 조건 없이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병자가 구하는 도움은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고, 사람들이 넣어줘야 하는 조건과 환경에 달려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법은 조건과 때가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물이 동하지 않고,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조건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3. 곧 나아가서 걸었습니다.

요 5:9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병자의 몸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그를 고쳤습니다. 주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병자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몸이 나았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살아봐야 좋은 날이 아니라 이미 좋은 날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으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고치리라, 치유하리라!” 오늘 한빛교회에서 주의 음성 듣고 베데스다, 영적 은혜의 집이 바로 이곳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에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주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오직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